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용민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백신에게 듣는다<서촌사춤번재>

혜정정사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밀교에 대하여
- 일시 : 불기2550(2006)년 7월 8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혜정정사약력]

- 진기16년(1962) 3월 대한불교진각종 입교
- 진기38년(1984) 8월 중앙교육원 아사리과 수료(2년)
- 진기43년(1989) 7월 종헌종법 연구위원에 피선
- 진기43년(1989) 8월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 진기43년(1989)12월 유가심인당 주교(현)
- 진기46년(1992) 8월 중앙경찰서 경승위원(현)



7월 사찰환경 답사

범어사,해동용궁사 - 부산,
오어사,보경사 - 포항

- 일 시 : 2006년 7월29일~30일(토,일요일) 오전7시
- 출발지 :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7만원
(숙식비/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7월 초

불기2550(서기2006년) 7월 (통권 제32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권두언

미국연등축제참관기

경기불교문화원 원장/우양 금당 진철희



2550년 5월은 국내외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각 사찰과 단체에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구촌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유독 본인에게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뉴욕불교국제봉축위원회(위원장 성해스님/불국사주지)가 주최하는 맨하탄 14가 유니온 스퀘어공원에서 하는 “살인없는 뉴욕, 전쟁없는 지구촌, 다민족 다국가 화합”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타민족 불교인들의 참여속에서 행사하는 맨하탄 국제봉축 퍼레이드 행사이다.

성해스님의 초청으로 뉴저지에 있는 뉴억 (newark) 국제공항을 거쳐 티넥(Teaneck)에 있는 불국사에 여장을 풀었다.

세계인의 심장이라는 뉴욕에서 금년이 18년째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각국(일본,미국,중국,스리랑카,이탈리아)스님들과 한국에서 특별 초청한 자비사의 진문스님과 봉축법요식을 마치고 뉴욕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6에브뉴를 따라 제등행렬을 펼쳤으며 32번가 한인타운에서 지구촌 평화기원 탑돌이를 마쳤다.



회향식을 마치고 저녁공양을 하며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불교관계자들에게 이곳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미국지역에 한인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국불교활동은 1964년 일봉서경보스님의 시작으로 삼우스님의 선련사, 고성스님의 한국사에 이어 1970년대 이한상거사가 이끄는 삼보사, 승산 큰스님의 프로비전스에 센터를 건립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포교체계를 갖추었으며 법안스님의 원각사, 도안스님이 LA관음사를 창건하여 현재에 이루고 있으며 80년대에는 혜성스님이 백림사를 창건하였으며

현재는 승산스님의 제자 미국인 무량스님이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테하자피 산중에 지은 태고사가 유일한 미국인을 위한 사찰이라 한다.

지금은 약 100여개 사찰에 150여명의 스님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종단이나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개인적 원력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미국인보다 교민을 상대로 한 포교를 집중하고 있으며 시설도 소규모 개인 주거시설을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나라에서 포교방법이 이런 수준이라며 타국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은 어떠했는가를 다시 생각해본다. 진정 해외에서 열심히 포교하시는 스님들에게 종단에서는 언제까지 낮잠만 자고 있을것인가?

경기 불교

부처님 말씀(9)

꽃의 향기가 제아무리 질더라도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질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의 향기는 바람을 멀리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 법구경 54 -

The scent of flowers cannot go against the wind;
only the reputation of good people can go against the wind.
The reputation of the virtuous ones is
wafted abroad in all directions.

- The DhammaPada 54 -

한방각비 전문점 고향숯불각비

대표 : 김 향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배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어느 여름날 죽음의 추억

본원이사/조계종 포교사 권중서



며칠을 퍼 붙던 장대비가 멎으니 언제 그렇게 하였냐는 등 피약별이 콩 볶듯 대지위에서 튀어 오른다. 사람의 변덕이야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사람을 제외한 타 중생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비 오던 날의 지긋함을 금방 잊어버리고 덥다고 한줄기 소나기를 기다려 본다.

저 멀리 흰 구름만 더위를 피해 저만치 비껴 앉아 한가로울 뿐 관세음보살님의 천수(千手)의 손을 빌려 만든 선풍기는 수 천 수만의 손으로 바람을 날려 보내지만 덥다고 마음먹은 이내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역 부족인 듯하다.

‘휴가’라는 갑자기 생긴 시간, 아니 공짜로 생겨서 그런지 도무지 내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허둥댄다. 입버릇처럼 죽을 시간이 없어 살고 있다고 녀석을 떨던 내가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죽을 시간을 번 셈이다.

늘 상 바쁘다는 핑계로 죽을 수 없다고 저승사자에게 큰소리치며 살아온 나였다. 그래도 그땐 저승사자가 고개 끄덕이며 수긍을 하였다. ‘그놈 바쁜 와중에도 남 위해 잘 하고 있네. 바쁘니까 내가 안 데려 간다. 그러나 한가할 때 두고 보자’ 이젠 정말 딱 걸렸다. 어린 내 딸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말이 ‘딱 걸렸어’였다. 정말 아빠가 죽음이라는 문제에 딱 걸렸다.

한가하여 아! 지금 내가 죽는다면? 억울할까? 마음은 편할까? 일직사자가 올까? 월직사자가 올까? 누구에게 빌리고, 빌려준 돈 있다고 말해야하나? 귀여운 내 딸은 어떡하고, 정말 혼란스럽다. 죽음이라는 것이 막상 죽으려 하니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50이 넘도록 불교공부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안다고 남에게 풍월도 읊어보고 내 댄에는 불자들에게 이런 저런 칭찬의 소리도 들어 보았지만 죽음 앞에 이 무슨 소용이람.

언젠가는 염라대왕이 삼촌 쯤 되고 저승사자가 5촌 쯤 되며, 명부의 다른 대왕과 권속들은 모두 내 친척처럼 가까이 지내는 척 당당하여 죽음에 대하여서는 타 불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지만 막상 죽음에 접하니 이것이 아니네. 죽음이 보기보다 꽤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걸 아니다. 그래도 죽음을 이야기 하려면 부처님하고 이야기 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제일 전문가가 아니신가? 죽음을 알면 삶이 보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인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진리의 말씀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을 “시명아늑다라삼막삼보리” 라 금강경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그래 죽음 또한 이름이 죽음일 뿐 무엇이 다르랴. 죽고 난 이후 내 모습은 무엇인가? 썩어서 바람결에 흩날리는 송장이 나인가? 물론 아니다. 육신이 나였다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삶도 죽음도 내가 아니라면 무엇이 나이기에 회로애락을 느낄까?

죽음이라는 문제로 인해 내가 또 바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바빠서 죽을 수 없다고 염라대왕께 안부 편지라도 보내야지 바빠서 죽을 수 없으니 제발 한가한 사람 데려 가라고.

“여보! 휴가라 낮잠만 자질 말고 한가하면 집안 청소라도 해요. 집에만 오면 잠만 자니 원 잔소리를 안할 수 없네.” 저승 밖에서 들려오는 현실의 세계에 놀라 어! 내가 잠이 들었다. 빨리 집안 청소하고 절에 가보아야지. 명부전 염라대왕이 웃으신다. “그래 너는 항상 바쁘게라. 이웃을 위하여” 나는 바빠서 좋으네. 히히

해질녘 산사의 논길을 걸으면 이 세상이 제 세상인양 울어대는 개구리소리가 싱그럽다. 경기 불교

현대트랜즈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205-4311 H.P : 011-345-6887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삼장법사 우암 진문/자비사 주지

萬派 苦樂은 心生 有處이요.
 일만 고와 낙이 나누어진 것은 마음이란 곳에서 생겨 나는 것이요.
 救度 納者는 心裏 無垢이며,
 법을 구원하는 출가자는 마음에 때가 없어야 할 것이며,
 金言 御人은 心淸 淨水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고,
 寶歸 種子는 心座 愁收하느니라.
 삼보에 귀의한 대중들은 마음자리 근심을 거두어야 하느니라.

마음은 본래 공한 것이라 마음을 비우면 도심이 굳어져 보리를 증득하게 되고 자신의 주인공인 마음 다스리는 공 부는 진여실상으로 위없는 지혜를 얻게 되어 덕행을 갖추게 되며 덕행의 공덕으로 불가사의한 법력에 따라 육도 를 해탈하게 되느니라. 마음을 비우고 항상 도를 구하는 것은 헤아리기 어려운 지혜를 찾는 것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면 마음이 고요하여 지혜를 찾는 것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면 마음이 고요하여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고로 구도와 수행에는 장애가 없느니라. 허공이 마음이요 마음이 허공이라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계신 곳이라 하나니 그러기에 부처도 보살도 중생도 모두 마음자리에 있음이니 모든 것을 허공같이 비울 줄 알면 중생들 마음 의 부처를 볼 수 있어 무량한 공덕을 받아 다생 겁을 해탈하고 삼계에 부는 모든 바람을 지혜로 잠재워 필경 성 불하게 되느니라.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천만가지 모르는 것을 다 알아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금강경에도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또 삼세에 대해서 공한것이니까 얻을려고 해봐야 무엇이 있어서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공하단 뜻입니다.

반야심경에도, 팔정도도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는 것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깨닫고 나면 할말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알았는데 알고 나니 할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전 속에서 이와같이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팔정도까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친정에 가서는 분명히 성불한다 합니다. 그걸 해탈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진리에 대한 무한한 것 신비스러운 여러 가지가 우주법계에 가득한데 과거 현재 미래세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진리의 모든 참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 합니다.

몰랐던 걸 알아내는 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경기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 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다도 교육생 모집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기초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기초반/중급반)
- 지도강사 - 홍인숙



사찰답사

설악산 봉정암 답사기

조계종 포교사 해도 어윤식

보정암 첫 번째 답사는 2005년

10월2일~3일 최금자보살 인연으로 다녀왔는데 올해는 9살된 아들과 함께 다녀왔다.

버스는 06:40분에 이천을 출발하여 10:00시 백담사입구에 도착하였다. 10:10분 마을버스 몸을 싣고 15분 지나 백담사에 내렸다.

백담사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조계종 제3교구 말사이다.

외설악을 찾는 사람들이 신흥사를 거쳐 설악산을 구경 하듯 내설악을 찾는 사람들은 으레 백담사를 찾게 되는 내설악의 첫 관문이다. 백담사 창건 유래는 만해 한용운이 지은 <백담사사적>에 근거하면, 신라 진덕여왕1년에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절을 지어 아미타불상 3위를 조성, 봉안하고 이름을 한계사라고 했다. 그 이후 만해 한용운스님 한일 독립운동 근거지 유명하여졌다. 현재에는 전두환 前대통령의 유배지 인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태이다.

먼저 백담사 극락보전에 있는 부처님 전에 삼배한 후 인원과악 및 조별편성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11시10분에 출발하여 영시암에서 점심을 먹고 13:00 다시 산 올라갔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코스 갈딱고개 (해발1180m)는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겨우 넘었다.

날씨는 출발 때부터 하산 할때까지 계속 비가 내려서 힘든 산행이었다. 발길을 잘못 내딛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들 손을 꼭잡고 입으로는 나무관세음보살 일념으로 염송을 하면서 내설악경치를 보면서 등산을 하였다. 올라갈 때는 진철희 경기불교문화원장님과 문화원총무님의 도움으로 빗길을 수월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



봉정암은 위치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소청봉 서북쪽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본사) 말사인 백담사의 부속암자이다.

창건역사는 643년(신라진흥왕12년)에 자장율사께서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하여 이곳 설악산 봉정암에 사리를 봉안하고 창건하였다. 그 뒤 677년(문무왕17년)에 원효대사가 중건한 역사가 깊은 사찰이다.

드디어 6시간 걸어서 봉정암에 도착하였다. 아들은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였다. 이럴때는「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았다」 줄을 서서 미역국 한 그릇 받아먹으니 힘이 솟아났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쌀을 들고 법당에 공양을 올리고 아들과 함께 부처님 전에 108배를 드렸다. 그리고 사리탑 앞에서 더욱더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서원을 다짐하였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500명 불자들이 봉정암을 찾았다. 밤10시 · 새벽기도 동참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업장을 내려놓고 지혜광명을 얻어 이세상이 밝고 행복한 세상을 만든 이가 될 수 있는 서원을 기원 하였다. 또한 이렇게 좋은 장소 만들어 주신 선지식들께 감사, 요사채 불사를 해주신 불자님께 감사절을 올렸다. 하룻밤을 잘 자고 06:55 봉정암 출발하여 13:05(8.3km) 6시간을 걸어서 백담사에 도착하였다. 하산 길은 최규미 보살님의 도움으로 조금 수월하게 내려왔다. 중간쯤 내려올때 아들은 빗길에 미끄러졌는데 다행히 큰사고는 없었다. 빗길 산행이라 큰 걱정을 했는데 40명의 불자들 모두 아무사고 없이 다녀올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마냥 웅석만 부리는 아이로만 생각했던 아들이 어느새 커서 어른들도 힘든 빗길 산행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녀온 것이 무척 대견스러웠다.

내년에는 여주교도소 직원불심회 불자들과 함께 봉정암에서 부처님 원력을 느끼고 반야의 밝혀 지장보살행원을 하였으면 좋겠다. 설악산 봉정암에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법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도 어윤식 두손모음

경기 불교

+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031)241-1004 / 원장실 (031)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초발심자경문 강좌안내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내용 : 초발심자경문
- 수강료 : 30,000원
- 강사 : 지묵스님
- 기간 : 1개월 과정



목탁소리

봉화 축서사를 다녀와서....

사찰답사반원/김미정

경기불교문화원 회보를 본 순간 6월의 사찰 답사 축서사...

오라버니께서 속가를 떠나 계셨던 봉화 축서사

큰어머니께서는 어머니가 오라버니를 낳으셨을 때, 목에 태줄을 감고 나왔다고 하시며, 스님이 될 팔자라고 어머니를 위로 하시던 기억이 난다.

아직도 애잔한 마음과 그리움이 훌쩍러지는 기억의 저편에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그립다.

설레임 속에 난 버스에 올랐다. 다니는 절에서 사찰순례를 갈 때 차량10여대가 줄 지어 달릴 때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는데 오늘은 한대의 버스에 가족 나들이를 하는 것 같았다.

법사님의 재치 있는 말씀과 해박한 지식에 감탄을 하며 창 밖에 질푸른 녹음과 어울려 평화로움이 가득 차고 있었다. 첩첩산중인 경북 봉화군해발1206m의 문수산 중턱에 위치한 축서사 화엄종의 조조인 의상대사가 부석사 보다 3년 앞서 창건 하였고 절 이름 축서사에서 축은 독수리를 의미하는데 인도에서 독수리는 문수보살의 화현으로 지혜를 상징하며 서는 것들이 머문다는 뜻으로 축서사라 함은 곧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이라는 법사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법당 앞서 먼 산 바라보며 오라버니 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들이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큰 스님 법문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합장하여 인사 할 때 모자를 벗으시고 답례해 주시는 스님의 모습에서 난 속으로 '감사합니다 성불하겠습니다' 하고 답례를 했다 다음에 꼭 한번 다시 오겠노라 생각 하며 산사를 내려 왔다.

늦은 점심은 시장이 반찬이라는 듯이 꿀 맛 나고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의 커피 한 잔은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이었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영주시 부석 면에 위치한 봉황산 중턱에 위치한 부석사로 향했다.

신라 문 무왕16년 에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짓고 화엄의 큰 가르침을 펴 던 곳. 삼국유사에 있는 설화를 보면 의상이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 할 때 그를 흠모한 여인 선묘가 용으로 변해 날아 와 줄곧 의상을 보호 하면서 이곳에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고 한다. 아직도 무량수전 뒤에선 선묘용이 변화시켰던 부석바위를 볼 수 있다.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중심 건물로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아미타여래불상을 모시고 있다. 절에 가면 참배만 하고 경치에 감탄만 하고 뒤돌아 오곤 했는데 오늘 법사님의 뒤를 따르며 난 단청이며 팔자지붕을 전을 모시고 있는 특징 하나 하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명찰인 부석사는 고즈넉하다.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기와지붕을 천년을 받치고 있는 목조건물이라니 .천년이란 세월의 상흔에도 곳곳이 선 모습이라니 실로 감탄이 절로 나온다. 가을의 산사를 그리며 우리는 부석사를 뒤로 하고 집으로 향했다. 사찰에 다녀오면 늘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고 마음을 다 잡곤 했는데 오늘은 더 더욱 힘이 솟는다.

손목 염주만 끼고 다녀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내게 오늘 사찰순례는 부처님 법을 널리 포교하리라는 서원을 하며... **경기 불교**



6월달 후원회비 내주신분들6월3일~7월2일)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진철희,장용집,홍인숙,최명길,이기순,이선우,김영희,이대곤,조창윤,진주범,윤영무,정무근,권중서,이상범,강재수,김기현,구광국,현병국,이임성,김말수,김준옥,안영찬,최정자,장옥훈,김영동,이난호,박선현,김은주,이태순,송호윤,김용필,진상범,민준홍,조명숙,이남덕,김순옥,김준호,양준영,송경주,이학운,강영식,김경수,염규용,이병일,조병희,배민한,심화식,진기홍,정현숙,차용희,이상남,정경화,서의호,김미정,박영희,조성남,함대식,장영남,이기원,어윤식,이민수,정재안,정효진,신윤식,박홍근,안병선,박상우,주인수,강기순,윤광숙,최옥란,이수교,김명옥,김혜자,조권형,이응우,이사현,이동재,김신자,박정자,공석남,서상열,김재숙,배정희,

기본교리 수강생 모집

- 개강일 : 8월 23일 개강 (매주 수요일 7시)
- 내 용 : 불교기초교리, 사찰의 구조등
- 수강료 : 50,000원
- 기간 : 3개월
- 강사 : 포교사및 전문법사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사랑방

경기불교 문화원 소식

경불원 소식

● 백인에게듣는다(서른여덟번째)

불기2550(2006)년 6월 17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진문 스님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법회가 있었습니다.



● 6월 사찰순례(축서사,부석사)

6월 사찰답사는 통일신라말기의 귀한 자료가 되는 석불좌상부광배가 있는 봉화 축서사와 전통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멋과 맛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한국건축의 고전이라 할만한 영주 부석사에 다녀왔습니다.



행/사/안/내

● 백중(우란분절)법회 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백중법회를 다음과 같이 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06(불기2550)년 8월 8일 (음7월15일)오후2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 동참금 : 위패당 1만원



♠몽골-바이칼호수 성지순례

경기불교문화원(원장 진철희)에서는 7/14~23(9박10일)까지 몽골-바이칼호수 성지순례를 16명의 불자들을 모시고 떠날 예정입니다.

신/행/상/담/실/시

본원에서는 나눔의 생활화의 일환으로 신행상담을 전문상담원을 모시고 실시합니다.

상담내용은 일반불교교리, 가정문제, 법률상담, 정신건강상담, 결혼상담 등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전화는 031)251-1083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불교상담개원 02)737-8803
- 한국여성불자연합회 행복한 가정상담소(02)738-558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02)2697-0155

▶여주교도소 붓다 아카데미 실시

여주교도소에서는 7/10~7/14까지 제4기 붓다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용주사 성무스님, 경기불교문화원 진철희 원장님, 권중서법사님,여주 신록사 현담스님,수지 지장사 의선스님,여주 최미영법사님등이 강사를 맡아 교육할 예정이며 60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계/소/식

▶“평양 국보전”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문화재 가운데 국보급 90점이 모였다.

문화유산에는 남북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러나 지역,시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남북 문화재의 '같음과 다름'을 비교해보는 재미는 남다르다.

이번 전시는 8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계속되며, 이후 국립대구박물관(8월 28일~10월 26일)으로 장소를 옮긴다.



▶일연스님 탄신 800주년 “민족문화대제전”

민족의 고전인<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스님(1206~1289)이 탄생한지 올해로 800주년, 스님의 탄신일인 오늘 6일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군위 인각사에서 “일연성사 탄신 800주년 기념 민족문화 대제전”이 오전 11시부터 개최됩니다.

▶호림미술관 소장 국보전 (6/22~8/31)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독특한 “청동 소탑”한질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백지묵서묘법연화경>등 평소 접할 기회가 없었던 문화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 호림 박물관(관장 오윤선)에서 열리는 국보전은 국보 16점, 보물 49점, 서울시 유형문화재 6점등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02-858-2500)



- 이달의 베스트 불서 -

1.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2. 맑고 향기롭게
3.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4. 기도
5.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7. 인연법과 마음공부
8. 오체투지
9. 동안거
- 10.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2006년도 하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2006년 6월~9월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8/23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지묵스님	30명	16주 120,000원	심신경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8월 중순 예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60,000원	찬불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불교상담대학	스님및법사	40명	4주 50,000원	불교상담 전문인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8/23개강
문 화 강 좌	요 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8/23개강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8/23개강
	명리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5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고급)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초급)	수시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영어회화	이영준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주부반 수시
	경락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혜정정사	100명	무료	밀교에 대하여!	7월 8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70,000원	범어사,해동용궁사-부산, 오어사,보경사-포항	7월 29일 오전 7시00분 출발	

■회원이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증"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